

구제역·AI '설 풍속도' 바꾼다

최장 9일 연휴 ... 고향방문 자제 당부에 귀성객 해외로 발길

선물도 육류 보다 수산물·과일로

설 연휴가 불과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좀처럼 명절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 속에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상당수 지자체가 구제역 방지를 위해 '귀성 자제'를 호소하고 나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장 9일에 이르는 긴 연휴를 이용해 해외나 국내 관광지 등으로 눈길을 돌리는 출향민들은 급증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차가운 날씨에 구제역과 AI, 긴 연휴 등이 맞물리면서 설 풍속도가 크게 달라진 것이다.

◇귀향 막는 구제역=이번 설에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가족이 한 데 모여 음식을 나눠먹거나 이야기를 나누

는 모습을 좀처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는 광주·전남북 지자체와 한우 협회 등이 혹시라도 모를 감염을 우려해 출향민들의 귀성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최근 전국의 호남향우회에 긴급적 귀향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설 연휴에 귀성객들로 인해 구제역이 유입되거나 AI가 확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초긴장 상태다. 전북도 역시 출향민들에게 편지를 보내 "전남·북을 제외한 전국이 구제역 권역인 만큼 고향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구제역으로 비상이 걸린 전국한우협회도 설 연휴 동안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자녀의 귀성을 막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해외여행 러시=구제역과 AI 때

문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고향 방문을 포기한 출향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 연휴는 이틀간 휴가를 낼 경우 최장 9일에 달한다는 점에서 고향 대신 해외로 떠나는 가족이나 연인 등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항공업계에 따르면 사실상 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 노선의 항공편 예약이 모두 완료됐다. 일본이나 중국 노선 역시 이날 현재 90~95%가 넘는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설 연휴 동안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수는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양 여행업계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설 연휴 해외여행 계획을 세운 관광객은 6만2000여명에 이른다. 이는 역대 설 출국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2008년 설 연휴에 비

해 40% 이상 늘어난 규모다. ◇수산물이나 과일 인기=최근 택배배달계와 우체국 등은 매일 쏟아지는 설 선물로 넘쳐나고 있다. 구제역 등을 낼 경우 최장 9일에 달한다는 점에서 고향 대신 해외로 떠나는 가족이나 연인 등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항공업계에 따르면 사실상 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부터 필리핀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 노선의 항공편 예약이 모두 완료됐다. 일본이나 중국 노선 역시 이날 현재 90~95%가 넘는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설 연휴 동안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수는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양 여행업계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설 연휴 해외여행 계획을 세운 관광객은 6만2000여명에 이른다. 이는 역대 설 출국자 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2008년 설 연휴에 비



설 가래떡 선물 대안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김필식)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25일 북구 임동 광주적십자봉사관에서 독거노인·다문화가정·새터민 등 600세대에 전달할 사랑의 가래떡을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졸업식 '추태 뒤풀이' 대신 추억 쌓기

일곡중 등 광주 8개 학교 공연·전시 이벤트

일곡중학교 졸업생들은 졸업식(2월10일)에서 '한마음 추억쌓기'를 주제로 한 반별 공연을 펼친다. 재학생들은 졸업축하 편지를 만국기처럼 교문과 졸업식장에 장식한다. '알뜰 뒤풀이' 등 일부의 비뚤어진 행태를 바로잡기위해 광주시교육청이 지정한 '학교문화 선도학교' 8곳이 새로운 졸업문화를 선보

인다. 선도학교는 큰별초·송학초·광주동신중·일곡중·용봉중·살레시오여고·송일고·전대사대부고 등이다. 광주살레시오여고는 졸업식에서 학급별 특징을 상징화한 그림 전시와 후배들이 마련한 축하공연, 졸업생들이 부모님과 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벤트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일곡중학교는 1부 졸업장 수여식, 2부 학부모 교사 및 학생 축하공연, 3부 나눔의 시간으로 나눠 졸업식을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들의 사례를 초·중·고에 보내 졸업·입학식 모델로 삼도록 할 방침이다. 일곡중학교 박영숙 교사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어울려 즐기는 축제 같은 졸업식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노모·형 살해한 50대 22년 중형·전자발찌

광주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5일 자신을 정신질환자로 취급한 데 앙심을 품고 어머니와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 살해 등)로 기소된 최모(52)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 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30일 새벽 4시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자는 형(59)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89)도 흉기로 찔러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편입할 사람 김영에 다 모여라! 대학편입 1학년부터 시작하자! 편입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전남대편입 전문강좌/편입영어, 편입수학, TEPS

김영편입학원 www.kimyoungh.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AI와 밤낮없는사투 격무에 쓰러진 공무원

보성군 심상대 계장

조류인플루엔자(AI) 매몰처분과 방역작업에 참여했던 보성군 간부가 격무에 시달리다 숨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25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30분께 보성군청 녹차산업과 사무실에서 심상대(58·사진) 녹차육성계장이 근무 중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근경색 증세로 1시간 여 만에 숨졌다. 심 계장은 순직 전날인 23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AI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추운 날씨 속에 동료 직원들과 밤 늦도록 한 오리농장의 매몰 작업에 참여했다. 또 다음날 아침에도 최근 병가 중인 삼당자를 대신해 근무 주제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등 과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 계장은 지난 1979년부터 30여 년을 보성군 공직자로 재직하면서 온화한 성품과 강한 업무추



진력으로 동료들의 신망도 두터웠다. 녹차산업육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개발 등 보성의 역점시책 추진에서도 성실과 근면함으로 주변의 인정을 받아왔다. 특히 심 계장은 정년퇴직이 1년6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숨져 직원들의 비통함을 컸다. 같은 부서 직원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격의없이 직원들을 대하는 등 훌륭한 성품을 가진 분이셨다"며 "지난 연말 건강검진 결과도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날 아침에도 최근 병가 중인 삼당자를 대신해 근무 주제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등 과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심 계장은 지난 1979년부터 30여 년을 보성군 공직자로 재직하면서 온화한 성품과 강한 업무추

나원침 (8230) 김창두



'뺑소니' 탤런트 김지수 벌금 1천만원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명순 부장검사)는 25일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탤런트 김지수(39·본명 양성운·사진)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5일 밤 8시50분께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갤러리아 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유모(55)씨의 택시와 부딪히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소속사를 통해 "자신들과 삼페인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내고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겁이 나 그 자리를 피하고만 싶었다. 너무나 죄송하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아직도 정신 못차린 공무원

부안군청 16명 허위 출장비 7천만원 빼돌려

부안경찰은 25일 허위 출장신청서를 꾸며 수천만원대 출장비를 빼돌린 부안군청 공무원 장모(4급)씨 등 16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비교적 횡령액수가 적은 공무원 김모(6급)씨 등 11명을 군청에 기판통보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허위로 출장신청서나 여비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총

118차례에 걸쳐 모두 7000만원 상당의 출장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 등은 출장비를 횡령하는 과정에서 서로 묵인해주거나 도와주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부당 수령한 출장비를 회식비나 식사비, 예경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윤길호기자 y2011@

'유공자' 모친 사망 24년간 숨기고 역대 연금

광주동부경찰 60대 적발 가짜 주민증까지 만들어

광주동부경찰은 25일 어머니의 사망사실을 숨기고 24년간 거액의 연금을 받아 온 문모(60)씨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1986년 8월 30일 6·25 전사자의 미망인인 어머니(당시 56세)가 직장암으로 숨졌는데도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어머니 명의의 통장으로 매달 들어온 연금 총 1억6000만원을 부당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문씨는 지난 2006년 보존형 실태조사에서 어머니 사망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작은 어머니를 데려가 어머니 명의의 가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최근 실태조사를 피하기 위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부

당수령한 연금 가운데 채무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최근 5년 수령분 5400만원만 환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차 훔쳐 타고 차량 털이 동부경찰 10대 4명 검거

광주동부경찰은 25일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다니면서 차량털이를 한 배모(18·광주 모 고교 3년)군 등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배군 등은 지난달 14일 새벽 4시께 목포시 산정동에서 김모(37)씨의 승용차를 훔친 뒤 다음 날 새벽 3시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에 주차된 김모(여·36)씨의 소나나 승용차 안에 있던 카메라를 훔치는 등 6차례에 걸쳐 모두 1600만원 상당의 승용차와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잔돈 바꾸러 간 틈 타 현금 털이

○세탁소 주인이 잔돈을 바꾸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돈을 훔쳐 달아난 10대 청소년이 경찰서행. ○2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19)군은 지난 18일 오후 7시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전모(45)씨의 세탁소에서 현금 25만원을 몰래 가져가는 등 전씨의 세탁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 ○경찰조사 결과 김군은 세탁비로 1만원을 건넨 뒤 전씨가 잔돈을 바꾸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절도행각을 벌였는데, 경찰에서 "PC방비를 마련하려고 했었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세탁소 주인이 잔돈을 바꾸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돈을 훔쳐 달아난 10대 청소년이 경찰서행.